

‘순창사랑상품권’ 이용 만족도 높다

출시 20여일만에 2억원어치 판매...타 지자체보다 인기 7% 할인율·900여 가맹점 등 사용자 불편함 없도록 보완

순창군이 8월 판매를 개시한 순창사랑상품권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역 자급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출시한 순창사랑상품권이 20여일이 지난 현재 2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는 일평균 16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상품권을 운영하는 전북도 타 지자체와 견주어 높은 판매량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결과는 7%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과 900여개의 가맹점, 판매·환전 대행점 확대 운영(21개소) 등 체계적인 상품권 운영시스템을 갖춘 것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순창군은 지난 2007년 발행한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의 80%이상 사용시 이용자에게 잔액을 반환하거나, 가맹점이 상품권

환전 때 대금청구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등 제도적인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따라 군은 가맹점 환전 때 당일 환전과 이용가능한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상품권이 조기 정착해 군민 모두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했다. 등록 가맹업체 수가 대폭 증가한 점도 판매 확대에 보탬이 되고 있다. 군은 상품권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맹점 늘리기에 힘쓴 결과 지역 업소의 90%이상인 900여개소의 가맹점 등록을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 주민 김모씨는 “예전에는 가맹점·판매점이 적어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구매하면 돈도 절약되고 이용할 가맹점이 많아 사용이 편리하다”면서 “주변 지인과 친척들에게 상품권 이용을 권장하고 있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역 농협 창구에서 순창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을 동안 추석명절 특별이벤트 행사로 상품권 구매 때 할인율을 10%로 대폭 확대 읍·면 판매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시, ‘레드서클캠페인’ 전개

혈압·혈당 관리 중요성 알려 심뇌혈관질환 예방

정읍시는 시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레드서클 캠페인’을 전개한다. 레드서클 캠페인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20일 시립중앙도서관을 시작으로 21일 나눔빌에서 찾아가는 레드서클존(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운영, 무료로 기초건강 검진과 상담을 실시했다. <사진> 또 27일부터 28일까지는 전북권역심뇌

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해 시청 1층 중회의실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동맥경화 검사와 뇌졸중 주요 위험인자 발견을 위한 심방세동 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고혈압과 당뇨 교실 참석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퀴즈대회를 연다. 정읍시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형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꾸준한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농기센터, 춘향골 딸기 품질 극대화

우량 딸기묘 생산 90여 농가 10ha 육성 자체 공급망 갖춰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춘향골 딸기’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사진>를 집중 육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현재 남원 지역에서는 농가 90호가 10ha에서 딸기묘를 생산, 전체 소요량의 70~80%를 공급하고 있다. 남원지역에서는 금지, 송동, 주생면을 중심으로 140ha에서 겨울철 시설원에 농가들이 딸기를 재배해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서는 우량모종 확보가 중요한데 이전에는 모종의 35% 이상을 외지에서 구입하다 보니 막대

한 비용이 외지로 유출돼 왔다. 또 모종의 품질이 일정치 않고 탄저병 등 불량묘의 비중이 높아 수량과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육성에 매진해 딸기 재배 농업인들이 스스로 육묘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32농가 2.25ha에 머물던 딸기묘 생산단지가 현재는 90호 10ha에 이르도록 육성돼 자체공급망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것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곡성 멜론’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곡성군은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단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곡성 멜론’<사진>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곡성은 1982년에 하우스 농사를 통해 멜론 재배를 시작해 약 40년 동안 대표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했다. 곡성 멜론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풍부해 멜론 특유의 풍미(Flavor)가 진하다. 곡성군은 지역 대표 특산품인 곡성 멜론의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해 소비자 신뢰와 멜론 농가 수익 향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을 준비했다.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을 위해 곡성 멜론의 품질 특성, 생산 유래, 지리적 특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기구인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구례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종자 보존 업무협약

구례군은 지난 20일 아시아 최대 수목원으로 알려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종자 보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구례군에 따르면 양측은 협약을 통해 지리산 야생화 종자 보존 및 종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생물 다양성 활용과 산림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시드뱅크 중보보존 등을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구례야생화연구소 보유 산림 식물 종자 시드뱅크 중보보존 ▲산림 식물 종자 수집 및 증식 ▲종자와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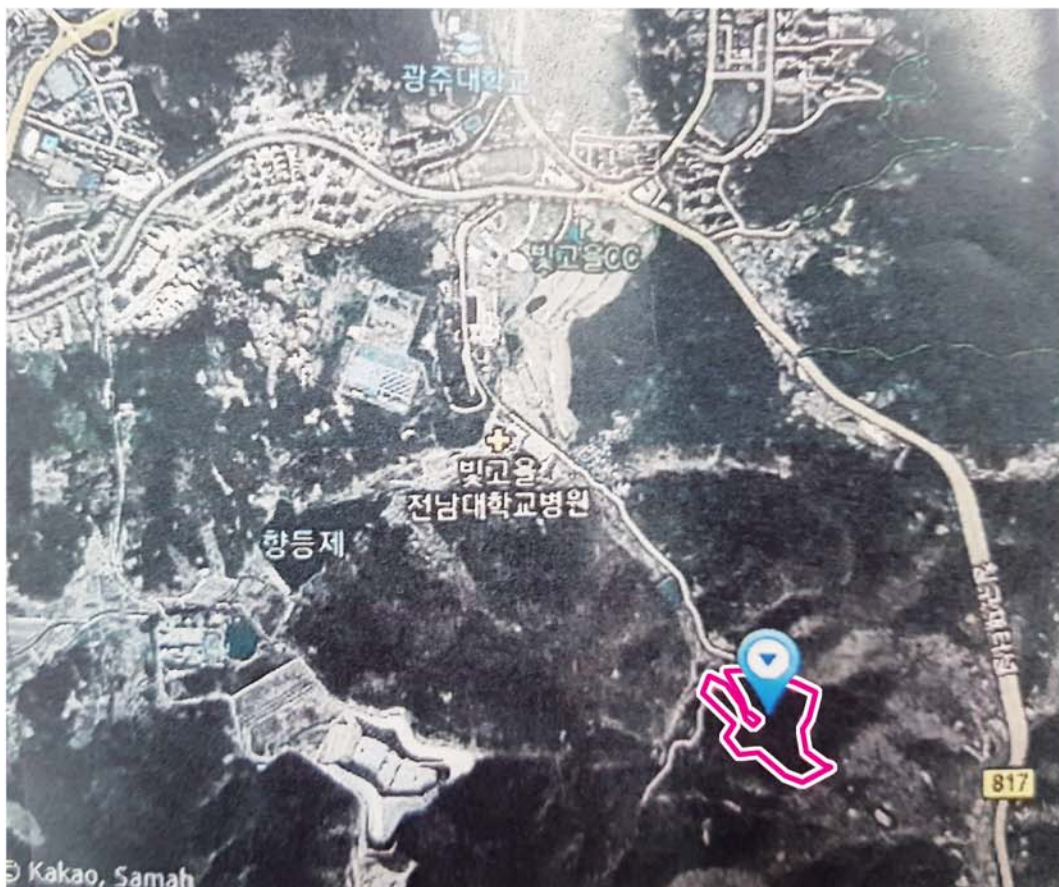
본을 포함한 식물정보교류 ▲산림 식물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공동 연구 ▲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등을 담았다. 군은 지리산권 대표 자생식물인 히어리, 노고단 원추리, 갯쟁이풀, 땅나리, 미선나무, 송마 등 200여 종 300점을 시드볼트에 영구보존 기탁했다. 또 구례군을 대표하는 산수유나무의 보존을 위해 구례군 산동면 계곡에 있는 할머니 산수유나무, 할아버지 산수유나무의 종자도 기탁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군산시, ‘고령자복지주택’ 150세대 짓는다

189억원 투입 2022년 완공

군산시가 고령사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공공임대 복지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시대(65세 이상 인구 비율 14%~20%)에 노인가구에 적합한 주택 및 복지시설을 갖춘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령자복지주택은 오통동 900~40번지 일원에 사업비 189억원을 투입해 영구임대 150세대(전용면적 26㎡)와 복지시설(연면적 1500㎡)을 함께 갖추게 된다. 시는 오는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해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덕남동, 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